

# 공회전 임시국회... 지켜온 네 탓 공방

### 폐회 D-4... 5·18 특별법·공수처 설치 등 입법과제 산적 輿, 상임위 정상 운영 촉구...한국당 "집권당이 책임 전가"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주간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네 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역지 공방'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닷새 남지 않은 18일 국회 공전의 책임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지난주에 한국당 원내지도부 구성과 의원들의 해외 방문 일정이 물리면서 개점휴업 상태였다면, 이번 주는 회기 종료로 목전에 두고 여야 모두 발걸음이 급해지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취임 축하를 겸해 만난 회동을 하는 만큼, 이날 만찬이 짝막한 정국을 풀어줄 것이라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에 제동이 걸린 5·18 진상규명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의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제 등을 꾸준히 거론하며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방송법 등의 통과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연내 종료되는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 연장 역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개헌특위의 경우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활동 연장이 의미가 없다며 한국당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동력을 상실한 개헌 문제를 놓고 책임 소재를 야당에 떠넘기기 위해 역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국회 공전을 놓고 서로 '네 탓'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의 초라한 입법 성적을 돌아보면 국민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라며 "정부·여당이 애초에 민생·개혁입법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지만 한국당 앞에선 소극에 경 일기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같은 필수적 개혁 과제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정상 운영을 한국당에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가 자기를 생각대로 되지 않자 한국당에 책임을 전가하며 몽니 운운하고 있다"며 "집권당이 배출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외교활동으로 해외에 나가 있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외유를 즐기고

있는데 과연 누구에게 빈손 국회의 오명을 씌우고 있느냐"고 반격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특별한 법안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 면피용으로 연말 국회를 연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면서 "이럴 거면 소하지 말고 차라리 빨리 국회를 닫는 게 국민을 위한 예의"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안 대표는 한중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120점이라고 하지만 내용과 형식 모두 낙제점"이라고 혹평했고,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일본 방문을 놓고도 "홍 대표의 '아베 알현 외교'도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양비론을 폈다.



산자위, 시작부터 난항 장병완 산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의표, 국민의당 조배호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의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준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참석문제로 대화하고 있다. 이채의 간사는 홍준표 장관이 퇴장하면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으나 장 위원장은 "한미FTA문제에 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견해를 듣기 위해 홍준표 장관이 참석해야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 여야 '임종석 운영위' 소집 놓고 신경전

### 한국당 "UAE 방문 배경 의혹" ... 민주당 "정치 공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동 방문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1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까지 연차를 떠나면서 이날 운영위는 파행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 행정실은 18일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19일 오전 11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며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한국당 김선동 의원 등 8인의 개최 요구로 소집됐고, 안전은 미

정"이라고 공지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을 문제 삼으며, 이 문제를 보고받기 위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비판하고 있으나 운영위가 열리는 만큼 회의에는 참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임 비서실장이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일 반

동안의 연차 휴가를 떠나 이날 운영위는 정상 개최가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는 연말 연차 소진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임 실장의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이유에 대한 정치권 공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매일 열리는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에 반차를 썼으며 오는 21일까지 연차 소진을 겸해 휴가를 보낸다. 임 비서실장은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

좌관 회의에도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 실장은 연말을 앞두고 연차 소진 차원에서 휴가원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임 실장은 지난 9~12일 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UAE와 레바논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파견부대 장병 격려'라고 설명했다. 그 배경을 놓고 정치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 실장이 원전 사업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UAE를 갔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문대통령 "한·중 정치·안보 협력 기틀"

### 수석·보좌관 회의 주제... 청년고용 대책 등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번 중국 방문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안보 분야까지 포함,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방문으로 한중 양국은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고용률도 좋아지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고 있어 청년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후반 인구는 올해만 9만 명을 포함, 2021년까지 39만 명이 증가했다가 2022년 이후부터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으로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안희정, 당권 도전하나

### 내년 도지사·재보궐 불출마 선언... 향후 행보 관심

안희정 충남지사가 18일 내년도 충남지사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초 정치권에서는 안 지사가 도지사 3선 도전 대신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해 원내에 진입하고 이후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 관측이 유력했다. 하지만, 안 지사가 두 선거 모두 불출마 뜻을 밝혔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직행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내년 6월까지 8년간의 도정을 잘 마무리하고 3선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면서 "현재로서는 보궐선거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일단 안 지사의 불출마 선언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그가 '원외' 신분으로 내년 8월에 있을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할 가

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요인 중 하나로 당내 조직기반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된 만큼 '약점 보완' 차원에서라도 당권을 잡은 뒤 전국 조직을 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민주당의 지난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도 범진노그룹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문재인이 하고 다음에는 안희정이다'라는 말이 돌았다. 따라서 안 지사가 당권에 도전하면 진문(진문재인)세력의 상당수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재보선 출마와 관련해 해서는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당에서 강하게 요구할 때는 수도권 등에서 출마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후폭풍

### 최고위 취소... 탈락 원 내외 인사들 잇단 반발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의 당무감사 결과, 서정원 의원 등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하면서 당내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선, 18일 오전에 열리기로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는 이례적으로 취소됐다. 반발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또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원 내외 인사들은 국회로 찾아와 반발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불가피한 조직 혁신이자, 당무

감사 자체가 객관적으로 이뤄졌음을 강조하는 등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힌 만큼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유기준 의원(부산 서·동구)은 국회에서 함께 탈락한 진동규(대전 유성갑)·김척수(부산 사하갑)·구본철(인천 계양갑)·이건영(충남 아산선) 당협위원장 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당무감사는 당 대표의 폭주를 견제해 온 인사들을 몰아내려는 정치보복이다. (홍준표) 사당화를 위한 내부 정적 제거에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